

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, "4KS 꼭 실천해요"

시공사 합동 안전결의대회

정재길 기자

승인 2025.04.20 23:46



[사진=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]

[한국영농신문 정재길 기자]

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(지사장 이돈문)는 지난 9일 지사 대회의실에서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'2025년 청림이행각서 교환식 및 4KS 실천하기 안전결의대회'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4KS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에서 제정한 건설현장 안전기준으로 ▲꼭 지키자 안전(Keep Safety) ▲꼭 지키자 기준(Keep Safety Standard) ▲꼭 살피자 안전(Keep Safety Search) ▲꼭 지키자 스스로(Keep Safety Yourself)을 의미한다.

성주지사는 공사 및 시공사 직원 합동 안전결의를 통해 안전의식을 제고함으로써 안전과 무사고 달성에 힘쓰고자 본 행사를 마련했다. 이날 결의대회는 공사감독과 현장대리인 등 15명이 참여하였으며, 청림이행각서 교환식,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4KS 실천하기 결의문 낭독 및 안전교육 순으로 진행되었다.

이돈문 성주지사장은 "공사는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전념하도록 본 행사와 같이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"면서 "안전결의대회를 통해 현장의 모든 구성원이 안전사고에 경각심을 가지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"고 말했다.

정재길 기자 ynkiler@hanmail.net

인쇄하기